동네방네

광주시, 청년 일경험드림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14일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7기에 참여할 청년 510명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광주청년드림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전신청을 하고,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드림 만남의 날'에 반드시 참석해 상담과 면접을 거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드림청년들은 3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공공기관, 공익활동, 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창업기업 등 6개 유형 350개 사업장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된 임금을 받고 일경험을 할 수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장성군, 올해 첫 공연으로 '동춘서커스'

장성군이 2020년 첫 번째 공연으로 '동춘서커스'를 선보인다.

장성군은 2020 정월대보름 기념공연으로 '동춘서커스'를 준비했다. 공연은 오는 2월 7일 오후 3시, 오후 7시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동춘서커스는 95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국내 유일의 서커스 공연단이다. 1925년에 창단해 1960년~197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1978년까지는 연극, 쇼, 국악, 서커스, 마술, 풍물 등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공연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순천만잡월드 조감도

'순천만 잡월드' 시험운전 거쳐 내년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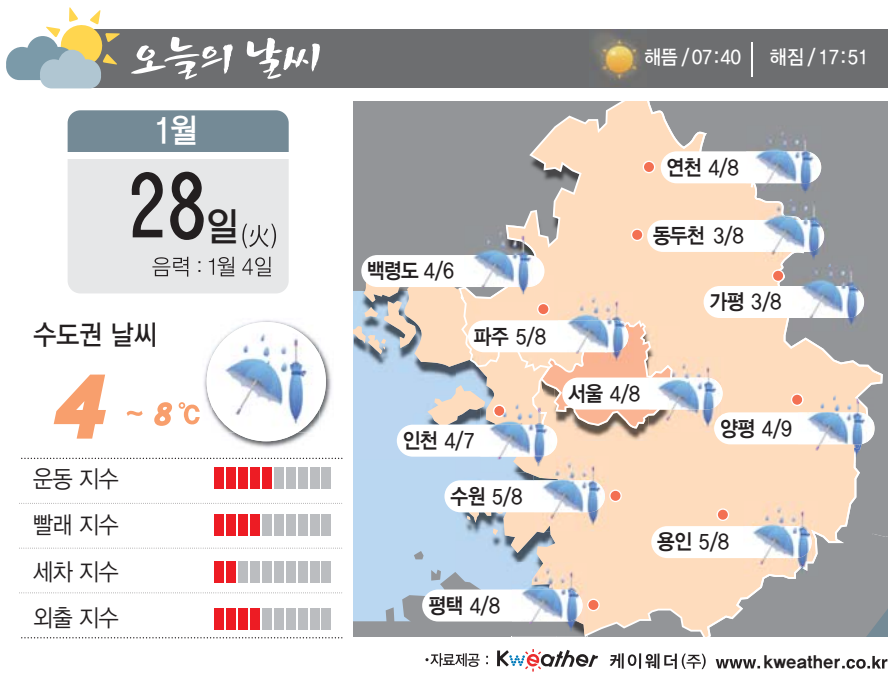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직업 체험시설 '순천만잡월드'가 오는 8월 건축공사 마무리와 함께 위용을 드러낸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 대안뜰에 건립 중인 어린이·청소년의 직업체험공간 '순천만 잡월드'가 지난 2018년 3월 기공식 이후 순조로운 공정이 진행되면서 올해 내 착공과 시험운전이 실시될 예정이다.

'순천만잡월드'는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잡월드'에 이어 두 번째로 영·호남 교통의 요충지인 순천시 해룡면 일대에 들어선다.

국비 240억 원을 비롯해 도비 46억, 시비 149억, 전남도교육청 50억 등 총 485억 원을 들여 3만4903㎡ 부지에 건축 연면적 800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되고 있다. 시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반조성공사를 마친 후 올해 8월까지 1년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잡월드 건물이 윤곽을 드러내면 10월부터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2021년 4월 정식 개관한다.

순천만잡월드는 전남과 전북, 중부권 및 경남 서부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 체험 및 진로 설계를 도와줄 중요 교육 체험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양수녕 기자



전남도,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추진

수산가공유통에 1200억

가공, 유통시설 등 복합센터 건립
신속 가공, 저온저장 위해 367억
홍보, 판촉 통한 제품 판로 확대

전남도와 한국무역협회 지원으로 중국 시장개척단에 참여했던 ㈜그린씨푸드가 14일 병어 5만7000달러 어치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을 마쳤다. /뉴시스

전남도가 올해 1200억원을 투입, 수산식품수출단지 구축 등 수산가공유통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해조류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시설, 국제수산물거래소, 가공공장, 냉동보관시설, 수출기업 지원시설 등 수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34억원을 투입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수산식품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 유통 시설 등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290억원을 투입해 화순군 능주면과 해남군 마산면 등 2개소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수산물의 신속한 가공처리와 저온저장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해 52개소의 수산물가공시설 건립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 수산물의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75억원을 투입, 22개소의 저온저장시설을 확충, 수산물의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신선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해 청정위판장, 산지거점유통센터, 수출물류센터 등을 건립해 내수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유통·공급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 수산물의 다양한 홍보와 판촉 활동을 통한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 28억원을 투입해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TV홈쇼핑·박람회 등 참가를 지원한다. 국제식품기준(CODEX)에 적합한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해 220억원을 투입해 천일염종합유통센터,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장기저장시설 등을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을 활용해 기능성 수산식품개발 및 산업화, 고차 가공시설 지원 등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광주시, 아파트 담장 허물어 보행로 탈바꿈

보도폭 좁아 통행 불편 민원 많아
금호동 시영3단지 주변 환경 개선
도시공사1단지 인근 보행로도 추진

광주 시영3단지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 보도 통행에 불편이 있는 서구 금호동 일대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광주시는 메타세쿼이아 성장으로 시민통행이 불편했던 서구 금화로 시영3단지 아파트 주변 보행로에 대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금화로 보행로에는 생장이 빠른 메타세콰이어가 커가면서 둘레가 굵어지게 되고, 보도의 폭이 좁아져 통행이 불편하다는 시민 불편사항이 많았던 구간이었다.

광주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동의를 구했다. 이어 보행로와 아파트 사이의 담장을 허물어 가로수를 보호하면서 보행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아파트 주변 경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연내착공 추진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를 연내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4~6월 제3연륙교 설계경제성 검토(VE), 지방건설기술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어 8월 실시계획 인가와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거쳐 12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6㎞, 폭 29m(왕복 6차로+자전거도로·보도)이며 공사비는 6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공사 기간을 애초 예상된 66개월에서 54개월로 최대한 단축해 2025년 하반기에는 개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3연륙교는 지난 2006년 당시 영종·청라국제도시 택지 조성원가에 사업비 5천억원을 반영해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제3연륙교 개통 때 통행량이 줄어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 간에 이견을 보여 착공이 미뤄졌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화순군 청풍면 화학산 봄맞이 축제 준비 분주

아직 바람이 매섭지만 화순군 청풍면은 봄꽃 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청풍면에는 고산 철쭉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해발 613m의 명산 화학산이 지역을 감싸는 지석천을 굽어보고 있어 예로부터 신령 시 돼온 산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봄 '화학산 고산 철쭉제'가 열린다.

올 축제는 오는 5월 2일 '유채와 철쭉이 썸타는 화학산'을 주제로 열린다. 축제장으로 가는 도로가 확장되고 벚꽃 가로수 또한 조성돼 봄의 운치를 한층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김태수 기자